

## 제42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 ‘대구시 한중 환경사업의 성과 및 시사점’

- 제42회 충청중국포럼이 지난 9월 18일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구환경공단 이수열 팀장이 『대구시 한중 환경사업의 성과 및 시사점』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도 및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그림1> 제42회 충청중국포럼 사진

- 이수열 팀장은 대구환경공단에서 추진해온 물환경 분야의 한중협력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 대구환경공단은 대구광역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위해 설립된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전문공기업이라고 소개하면서 2014년 7월 장쑤성 이싱시와의 업무협약이 중국과의 환경사업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 업무협약 체결 다음해에 중국이 ‘신환경보호법’을 발행을 통해 환경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대구시와 이싱시가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큰 촉매작용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 그 동안 추진된 사업들의 성공적인 요인은 바로 현지에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공동협력을 이끌어낸 부분이며, 실패 요인으로서는 지분 출자, 가격 등 측면에서 사업추진 초기 협의와는 다른 합작내용에 의한 것인데 또 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포기에도 의한 부분도 있다고 종합하였다.
  - 최근 대구환경공단은 해외 환경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기업별 매칭 지원 프로그램, 국제 비즈니스 역량강화 프로그램, 해외사업 전문 플랫폼 구축 등 제도를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 이수열 팀장의 강의를 끝난 후 종합토론이 있었다.
  - 충남도 지속가능정책팀 추진승 주무관은 대구시 소재 환경기업들이 해외진출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이수열 팀장은 IMF이후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였었는데 이들의 대다수가 환경분야의 창업을 하면서 기업수가 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최근 몇년 동안 추가적인 시설 건설 수요가 거의 없어 해외에서 판로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하였다.
  - 정종관 박사는 2018년부터 중국이 대기환경에 대해 강화하면서 기술경쟁력도 상승하고 있어 막처리 기술분야의 경우 오히려 한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경험상 어떠하였는지 질문하였다. 이수열 팀장은 수처리, 폐기물분야는 아직은 기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우리기업들이 기술우위가 있기 때문에 대구환경공단에서는 컨설팅팀이라는 조직을 신설해 중국, 베트남에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도 중화권팀 남상길 팀장은 공기업이 해외진출 사업을 하게 된 계기와 다른 지역 공단에서 유사분야로 벤치마킹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수열 팀장은 2015년 당시 한중 환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의 의지가 컸고, 마침 이싱시와의 업무협약이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어찌면 위임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공기업으로써는 국내 최초로 해외진출사업을 하고 있고, 타 지역 공단이 중국 등 해외국가에 진출시 지역만 겹치지 않는다면 벤치마킹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용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 충청중국포럼 소식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mailto:quanchfu@cni.re.kr))